

새 교구장 임명 관련 춘천교구민에게 보내는 교구장 서한

사랑하는 춘천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마음과 힘을 모으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 또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지금까지 잘 해 온 것처럼 지혜와 노력을 계속해서 모아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교구에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1월 21일 저녁 8시(로마 시각 정오)에, 지성과 영성을 두루 갖추시고, 본당 사목과 교구 행정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김주영 시몬 신부님을 제 뒤를 이어 제8대 춘천교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기도와 기다림을 잊지 않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기쁨을 전해 드립니다.

더군다나 80여년이라는 교구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교구 출신 신부님께서 교구장 주교가 되셨습니다. 춘천교구민 여러분과 함께 11년 가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오고 있는 저로서는, 이 큰 은총과 기쁨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신임 교구장 김주영 신부님께서서는 이태리에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당 외에도 교구청 여러 부서에서의 행정 경험을 두루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구의 역사와 현재, 나아갈 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으로서 교구장직을 겸손하고도 충실하게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춘천교구에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구민 여러분, 사랑과 지혜를 모아 이 새로운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새 교구장께서 하느님 사랑을 교회 안팎으로 널리 전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잘것없는 종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주교님을 보내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춘천교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춘천교구의 주보이신 예수 성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020. 11. 21. 춘천교구장 김윤희 루카 주교